

주변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에 관한 고찰

Study on Military of Around the Country and Defense Expenditure

조광현(삼육대학교)

차 례

1. 서론
2.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3. 국방비 지출의 분석 방법
4. 국방비 지출의 분석 결과
5. 결론

1. 서론

국방비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군, 해군, 공군 등의 소요경비는 현존 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인 전력운용비와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개발 비용인 전력방위력개선비 등으로 대별하여 정의하고 있다[16].

최근 한국과 북한은 예측불허의 무력도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영토문제, 과거사문제로 양국 간의 관계가 냉각상태에 놓여 있고, 중국과 일본은 영토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기실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역학관계는 매우 복잡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 양국 간의 정세가 불안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외교적인 친밀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인 친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정세가 불안하면 북한이 한국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다른 주변국을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관된 연료가 순조롭지 않아 단지 양국 당사 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우회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주변국은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에 한정하기로 한다. 한국은 이들 주변국 사이에서 틈에 끼여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군사적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요충지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19세기로 회귀하는 구도를 연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주변국과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근간 방공구역을 둘러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4개국은 각종 매체를 과열시키는 하나의 문제로 부각되어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한 치의 양보도 꺼려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각국 간의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은 미국을 배경으로 한층 고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손쉽게 실마리가 풀릴 것 같지 않다.

주요 매체가 머리기사로 다루어지고 있는 방공구역 문제는 각국이 주장하는 부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견으로 인하여 군사적인 시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방공구역도 군사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사료된다.

국방비 지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한나라의 안전보장을 산업간 순환, 지역간 순환을 파악하여 지역경제계획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6]. 국방비를 경제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의 적정규모, 조달, 지출상의 거시효율을 증진시키는 측면을 국민경제의 상

관관계로 규명하였다[8].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기초하여 국방예산의 지출 구조 개선과 예산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17]. 공공부문인 국방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국방비 구조와 국방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를 규명하였다[13]. 국가안보와 국방비의 관계를 안보위협과 경제적 영향, 국방비와 국민경제 등의 관계를 걸프전, 코소보 사태, 연평해전 등의 사례를 통하여 그 중요성을 제시하였다[3]. 한국의 안보 현실에 따른 국방비의 적정규모 수준, 국방비의 현실적인 문제, 국방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5]. 국방비는 한 국가의 국방부문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의 재정운영, 국가 경쟁력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국방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였다[10].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 테러집단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방의 전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방비가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적정비율을 산출하였다[7]. 국방비 예산을 경제개발협력기구(G20) 회원국 간 국방비 지출규모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국방비 규모를 예측하였다[1]. 국방예산의 사용주체인 군인, 공공재원의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 납세주체인 일반국민의 국방비 규모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정책 선호에 대한 피리를 분석하여 국방비에 대한 정책적인 합의 증진을 모색하였다[9]. 안보여건과 국방비 배분 현실을 고려하여 국방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에 대한 국제비교, 정부재정에 차지하는 비율, 전략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의 차질, 국방예산의 적정성 판단 및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4]. 국방비 증가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이론적인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규명하였다[14]. 공공재인 국방비가 다른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한일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15].

본 연구는 주변국의 군사력의 변화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재인 국방비가 거시적인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구성은 우선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어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마무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국의 군사력 변화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정책적인 제언으로 매듭짓기로 한다.

2.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작금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각국 간 국제관계가 우호적이거나 소원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각국 간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방공구역 문제 등은 군사적인 행위를 불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은 군사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1 한국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 비교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변국의 국방비를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달러화로 명시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을 보면 2012년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 국방비 지출금액은 미국 6,825억 달러, 중국 1,661억 달러, 러시아 908억 달러, 일본 593억 달러, 한국 317억 달러 등의 순위로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은 주변국에 비하여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미국 4.1%, 러시아 3.1%, 한국 2.5%, 중국 1.2%, 일본 1.0% 등으로 순위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2012년)

(단위 : %, 미국 달러)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국방비(백만)	31,660	682,478	166,107	59,271	90,749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5	4.1	1.2	1.0	3.1
국민 1인당 국방비	593	2,057	76	467	420
병력 1인당 국방비	44,241	411,536	44,830	239,690	62,606

주: 러시아, 중국은 예산외자금(extra-budgetary funds)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1)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Military Expenditure」 2013.

한국은 주변국에 비하여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러시아 등에 비하여 낮은 반면 중국, 일본 등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방비 지출의 절대금액을 기초하여 비교하면 한국이 주변국에 비하여 최하위에 있는데 이는 국가 간 외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군사력이 막강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 1인당 국방비를 보면 미국 2,057달러, 한국 593달러, 일본 467달러, 러시아 420달러, 중국 76달러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병력 1인당 국방비를 보면 미국 411,536달러, 일본 239,690달러, 러시아 62,606달러, 중국 44,830달러, 한국 44,241달러 등의 순위로 한국은 주변국에 비하여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공공재인 국방서비스는 국민 1인당 국방비를 주변국과 비교하면 미국이 한국에 비하여 3.5배로 높은 수준인 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1.2배, 러시아에 비하여 1.4배로 각각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중국에 비하여 7.8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국방서비스는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3국에 비하여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병력에 대한 국방서비스는 한국에 비하여 미국이 9.3배, 일본이 5.4배, 러시아가 1.4배 각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국과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에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에 대한 국방서비스는 경제, 정치, 외교,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안정된 국가 운영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인 국제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0년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총예산은 309조6천억 원(300억 달러), 국방예산 31조원으로 총

예산 대비 국방예산은 9.8%이다. 북한의 총예산은 19조 원, 국방예산 5조2천억 원(5.2억 달러)으로 총예산 대비 국방예산은 6%이다. 국방위원회가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보다 16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의 국방예산 세부항목을 보면 31조2,795억 원은 병력운영·전력유지 경상비용 21조6,182억 원, 방위력 개선비용 9조6,613억 원으로 항공기, 포, 함정 등의 무기 구입용에 사용된다. 국방예산의 비율은 병력운영·전력유지 경상비용 69%, 방위력개선비용 31% 등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북한군의 국방예산 주요항목은 전력유지비용 30%, 방위력개선비용 40%, 병력운영 30% 등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면 병력운영·전력유지 경상비용은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9% 비중이 더 큰 반면 방위력 개선비용은 북한이 한국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력운영비용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북한 방위력에 집중되고 있다. 향후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위력을 향상시켜 최소한 남북의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2 한국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

한국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를 보기 위해서 2011년 미국 통화기준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냈다. 2000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기준으로 각국 국방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중국은 미국의 9.4%, 일본 15.3%, 러시아 8.2%, 한국 5.1%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 후 10여년이 지난 2012년에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기준으로 각국 국방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중국은 미국의 23.6%, 러시아 13.6%, 일본

표 2. 한국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

(단위 : %, 미국 달러)

국가별	1990년(A)	2000년(B)		2010년	2012년(C)		성장률(B/A)	성장률(C/B)
		국방비	미국대비		국방비	미국대비		
한국	15,059	20,031	0.051	29,912	31,484	0.047	2.89	3.84
미국	527,174	394,155	1.000	720,386	668,841	1.000	-2.87	4.51
중국	19,820	37,040	0.094	136,467	157,603	0.236	6.45	12.83
일본	47,802	60,288	0.153	59,003	59,242	0.089	2.35	-0.15
러시아	291,082	32,515	0.082	72,918	90,646	0.136	-19.68	8.92

주 : 1) 미국대비는 미국 국방비 지출 기준 각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2) 성장률은 1990~2000년의 전기, 2000~2012년까지 후기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자료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Military Expenditure」 2013.

9.8%, 한국 4.7%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전기,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후기로 나누어 각국의 국방비 지출의 성장률을 비교하기로 한다. 전기의 성장률은 중국 6.5%, 한국 2.9%, 일본 2.4%의 순위로 상승한 반면 미국 2.9%, 러시아 19.7%의 순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후기의 성장률은 중국 12.8%, 러시아 8.9%, 미국 4.5%, 한국 3.8%의 순위로 상승한 반면 일본은 성장률이 0.2%로 하락하였다.

전기에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은 국방비를 늘리는 군비확장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 러시아는 구소련체제가 붕괴되면서 양 강대국의 균형이 깨지면서 군비축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방비의 지출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후기의 국방비 지출 성장률은 러시아, 미국, 중국 등의 순위로 3개국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미미한 수준의 성장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다소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미국, 중국, 러시아 3대 강대국의 국방비 지출의 증가는 군비확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구도를 마련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군사행위로 볼 수 있다. 강대국의 군비확장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강대국 간 관계를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원만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 북방한계선, 개성공단의 활성화, 금강산관광의 재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일본과는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과 경제협력, 친밀한 외교관계 유지, 문화교류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3 한국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한국의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국방비 비교 (단위 : 조 원, %)

연도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방비	증가율	국방비	증가율
2012	33.0	5.0	33.0	5.0
2013	35.4	7.4	34.5	4.7
2014	37.6	6.2	35.8	3.8
2015	39.7	5.5	36.9	3.1
2016	42.3	6.6	38.5	4.2
합계	188.0	6.1	178.7	4.2

주: 원래 자료의 형식을 일부 수정함.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2013년.

중국과 일본은 군비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2012~2016년까지 국방비 투자 계획 중 9조3천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국방력을 증강시키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2].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서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안에서 2012~2016년까지 5년 간 국방비를 188조 원 투입할 계획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에서 같은 기간 국방비를 178조7천억 원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어 9조3천억 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2014년에 필요한 재원을 제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안의 국방비는 37조5,943억 원인 반면 정부가 반영한 예산 안 국방비는 35조8,001억 원으로 1조7,942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질은 발생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대선에서 세웠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소요가 많은 국방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첨단 고가 무기를 도입하여 장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2013~2017년 중기사업계획서에서 장비유지 예산이 2013년 2조1,681억 원에서 2017년 3조259억 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산출한 반면 정부는 2013년 2조1,546억 원에서 2017년 2조3,487억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6,772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안 보고서는 국방부가 수립한 재원 투자계획과 정부가 계획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 국방개혁의 완료 시기가 순차적으로 지연될 것이고, 전력운영·방위력 개선을 통하여 국방력 증강을 실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원 조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는 영토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군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군비경쟁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일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방관하면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 태세를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아가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국제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안보를 우선순위로 정해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3. 국방비 지출의 분석 방법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분석은 레온티에프가 개발한 계량 경제 모형을 활용하기로 한다[18]. 국내생산만을 가정하고, 최종수요, 수입을 외생적으로 부여하는 산업연관모형은 다음과 같다[14].

$$X = [I - A]^{-1}(F - M)$$

X : 산출액벡터

A : 투입계수행렬

I : 단위행렬

F : 최종수요벡터

M : 수입벡터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경제는 상기의 모형을 내생화한 경쟁수입형 모형으로 수정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X = [I - (I - \hat{M})A]^{-1}[(I - \hat{M})(F^d + E)]$$

\hat{M} : 수입계수행렬

F^d : 수입을 제외한 최종수요행렬

E : 수출벡터

상기의 산업연관모형에서 산출한 역행렬계수는 각 산업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두 가지 효과는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를 다음과 같다[18].

$$\text{영향력계수} : e_j = \frac{1}{n} \sum_{i=1}^n C_{ij} / \frac{1}{n} \sum_{i=1}^n \sum_{j=1}^n C_{ij}$$

$$\text{감응도 계수} : r_i = \frac{1}{n} \sum_{j=1}^n C_{ij} / \frac{1}{n} \sum_{i=1}^n \sum_{j=1}^n C_{ij}$$

e_j : 영향력계수

n : 산업부문 수

C_{ij} : 역행렬계수

r_i : 감응도 계수

영향력계수는 열 부문의 최종수요량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열의 각 부문이 직접·간접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수량평균이므로 해당 열 부문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감응도 계수는 각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량이 1단위 증가할 경우 행의 각 부문이 직접·간접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수량평균이므로 해당 행 부문이 전체 산업으로부터 받는 감응을 나타낸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공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등의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4. 국방비 지출의 분석 결과

국방비 지출이 직접·간접적으로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계수, 각 산업으로부터 받는 감응도계수를 얻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내생화 경쟁수입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4.1 국방비 지출의 경제효과

국방비 지출에 대한 직접·간접적으로 주고받는 경제적인 효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국방비 지출의 경제효과

연도	영향력계수	감응도 계수
1990	0.88286	0.49305
1995	0.84459	0.50227
2000	0.78072	0.50761
2005	0.81042	0.52229
2010	0.79463	0.51290

자료 : 국방비 추이의 한일 비교[15].

국방비 지출에 대한 영향력계수는 지난 20년 간 0.7946~0.8829의 값을 나타내었다. 1990년 이후 국방비 지출의 영향력계수가 전반적으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국방비 지출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은 1990년 이후 20년간 전체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감응도 계수는 지난 20년 간 0.4931~0.5223의 값을 나타내었다. 감응도 계수 전반적으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국방비 지출이 다른 산업 부문으로부터 받아 공급할 총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은 1990년 이후 20년간 전체

산업부문으로부터 받는 총생산유발효과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4.2 국방비 지출의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최종수요부문이 1단위 증가하면 다른 산업의 생산이 각각 몇 단위 유발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외생변수로 주어진 각각의 최종수요부문에 의해서 국방비 지출이 얼마나 생산이 유발되는지의 값을 나타낸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부문별 생산유발 추이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1990년 이후 20년간 평균 0.0159~0.017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최종수요 전체가 1조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총수요부문별 평균은 159억 원에서 178억 원의 국방비 지출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부문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소비지출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한 반면 정부소비지출, 공공투자, 민간설비투자, 재고순증가, 수출 등은 감소하였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 항목 간 생산유발계수는 정부소비지출이 가장 큰 반면 민간소비지출, 수출, 재고

순증가, 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등의 순위를 아주 작게 나타냈다. 여기에서 정부소비지출의 생산유발계수 0.161618을 민간소비지출의 생산유발계수 0.00731로 단 순비교하면 정부소비지출이 민간소비지출에 비하여 221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최종수요부문은 차이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4.3 국방비 지출의 수입유발효과

수입유발계수는 수입을 내생화하여 국내수요에 밀접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국내의 소비지출, 설비투자 등은 국내수요가 증가하면 국내생산에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부문별 수입유발 추이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국방비 지출의 최종수요부문별 수입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재고순증가, 수출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감소한 반면 공공투자, 민간설비투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국방비 지출의 최종수요부문 간 추이를 비교하면 정부소비지출이 다른 최종수요부문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방비 지출이 1원 발생하면 정부소비지출은 800원의 수입유발효과가 나타난다

표 5. 국방비 지출의 최종수요부문별 생산유발계수 추이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민간소비지출	0.002640	0.000000	0.000000	0.000720	0.000731
정부소비지출	0.201867	0.193961	0.193185	0.171360	0.161618
공공투자	0.000006	0.000000	0.000000	0.000183	0.000134
민간설비투자	0.000007	0.000000	0.000000	0.000189	0.000140
재고순증가	0.000375	0.000000	0.000000	0.000279	0.000197
수출	0.000345	0.000000	0.000000	0.000356	0.000287
평균	0.017338	0.015977	0.015961	0.017786	0.016750

주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부문별 생산유발생산액을 외생변수의 값에 대응하는 최종수요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생산유발계수를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_{ik} = G_{ik} / \sum_{i=1}^n F_{ik}, \quad i = 1, 2, \dots, n, \quad k = 1, 2, \dots, 6$$

C_{ik} : 생산유발계수, G_{ik} :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액 행렬, F_{ik} : 최종수요

자료 : Ibid.

표 6. 국방비 지출의 최종수요부문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민간소비지출	0.000001	0.000000	0.000000	0.000005	0.000004
정부소비지출	0.000101	0.000000	0.000000	0.001084	0.000800
공공투자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1	0.000001
민간설비투자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1	0.000001
재고순증가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2	0.000001
수출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3	0.000002

자료 : Ibid.

고 볼 수 있다. 그 외 최종수요부문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민간설비투자, 재고순증가 등의 순위로 아주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4.4 국방비 지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최종수요에 의하여 유발된 국내생산액은 중간수요액과 부가가치액으로 나누어진다. 최종수요부문별 국내생산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비율은 부가가치유발계수로 알 수 있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계측결과는 다음의 표 7에 명시한 바와 같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계수 추이의 변화를 보면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20년 동안 최종수요부문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부문 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정부소비지출(0.108971)이 그 외 최종수요부문(0.000090~0.000492)에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정부소비지출부문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있다. 최종수요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를 비교하면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은 낮아지고,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문은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이나 설비투자보다 소비 관련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은 국방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에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의 주변국은 경제, 외교

안보, 영유권, 과거사, 북방한계선, 방공구역 등 국제간의 분쟁이 상존하는 상황이 국내외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문제로 양국 간 관계가 소원해져 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을 야기할 군사시위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에 미국이 군사시위를 가세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긴박하게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국방비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은 중요하다는 것은 일말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군비경쟁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마련이라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주변국의 군비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국방정책은 국방비를 증강시키는 편이 되풀이 되는 역사에 휘말리지 않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력을 우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사료된다.

1990년대까지 미국과 구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군비증강을 일축해왔으나 그 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군비축소를 지향해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중국은 경제성장이 가속화하면서 더불어 군비증강을 수행해오고 있다.

2000년대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양립하는 새로운 강대국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각각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어 가는데 한국과 북한도 변화의 물결 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군비축소인가 아니면 군비증강인가의 귀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하여 계량경제 분석모형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1990년 이후 국방비 지출은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 7. 국방비 지출의 최종수요부문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민간소비지출	0.001410	0.000000	0.000000	0.000497	0.000492
정부소비지출	0.107823	0.118387	0.133667	0.118112	0.108791
공공투자	0.000003	0.000000	0.000000	0.000126	0.000090
민간설비투자	0.000004	0.000000	0.000000	0.000130	0.000094
재고순증가	0.000200	0.000000	0.000000	0.000193	0.000132
수출	0.000184	0.000000	0.000000	0.000246	0.000193

주 : 부가가치율은 각 산업부문의 부가가치를 국내생산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은 주로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가치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_j = V_j / X_j, \quad i = 1, 2, \dots, n$$

v_j : 부가가치율, V_j : j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액, X_j : j 산업부문 총생산액

자료 : Ibid.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부문별 생산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은 정부소비지출이 민간소비지출, 공공투자, 민간투자, 재고순증가, 수출 등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비는 외부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견고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방이 튼튼해야 하는 것을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선진국은 국가의 안보가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선진국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여 국방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본고는 주변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에 관한 것을 다루었는데 국방비 지출은 한국에 한정하여 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하였다. 향후 여기에서 다루이지 않은 국방비 지출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국제 간 비교를 차후 과제로 남기고 매듭짓는다.

참고문헌

- [1] 고종협, OECD 회원국에 근거한 국방비 지출 추세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제37권 제1호, 2011년.
- [2]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760781&cp=du>
- [3]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 군사논단, 제20-21호, 1999~2000년.
- [4] 권태영·김종태, 한국 국방비의 증액 필요성과 정책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1년.
- [5] 김기택, 한국의 선진국방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방비 적정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09년.
- [6] 김동규, 국가안보와 지역경제계획, 국방연구, 제19권 제2호, 1976년.
- [7] 김동규, 국방비 산정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43권 제1호, 2000년.
- [8] 김수진, 국방비의 경제적 의미, 국방연구, 제19권 제1호, 1976년.
- [9] 문세영, 국방비에 대한 정책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년.
- [10] 백재욱·유태현·현성민,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2000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제19집 제2호, 2005년.

- [11]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3년.
<http://milexdata.sipri.org>
- [12] 영국국제전략연구소(IISS), 2013.
<http://www.iiss.org/en/publications/military-s-balance>
- [13] 정갑영, 국방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접근-, 국방연구, 제43권 제1호, 2000년.
- [14] 조광현, 국방비 증가가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2집, 2011년.
- [15] 조광현, 국방비 추이의 한국과 일본 비교 분석, -산업연관분석 응용-,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5집, 2013년.
- [16] 통계청, 나라지표, 2013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_S_IdxMain.jsp?idx_cd=1699&bbs=INDX_001&clas_div=A
- [17] 황성현, 국방예산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과 지출구조 개선 방안, KDI정책연구, 1998년.
- [18] Leontief, Wassily Wassilyovich(1953),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39: An Empirical Application of Equilibrium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9] Rasmussen, P. N.(1957), Studies in Inter-Sectoral Relation, North-Holland

저자소개

● 조 광 현(Kwang-Hyun Jho)



- 1990년 3월 일본 지바대학(농경제학사)
- 1992년 3월 일본 지바대학(농경제석사)
- 1995년 9월 일본 지바대학(Ph.D)
- 1999년 3월 ~ 현재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식품산업, 국방산업, 유통산업, 금융산업, 문화산업